

제9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0. 08. 19.(수) 09:30 ~ 12:30
장 소	전주시청 4층, 회의실
참 석 자	위원장 등 10명 (재적인원 11명 중 10명 참석)
주요내용	○ 시민공론화위원회 주제별 검토 및 논의 ○ 시나리오워크숍 의제 및 논의 방향 예시(안) 작성 및 검토 ○ 시나리오워크숍 진행 절차에 대한 논의 ○ 차기 회의 일정
회의결과	○ 시민공론화위원회 주제별 검토 및 논의 -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사항 -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등에 관한 사항 ○ 시나리오워크숍 의제 및 논의 방향 예시(안) 작성 및 검토 ○ 시나리오워크숍 진행 절차에 대한 논의 ○ 차기 회의 일정 : 2020. 09. 04.(금) 09:30 ※ 언론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는 생략

제9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 개 회

발 언 자	발언 내용
간사	- ○○○ 위원님께서서는 출장 제한에 따라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 시민공론화위원회 총 재적인원 11명 중에 10명이 참석하셔서 운영 규정 제8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시민공론화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사항 설명

위원장	- 먼저 용역 관련 진행 상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 현재, 공고를 올렸지만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되었고, 재공고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내일이 제안서 접수 마감일이고요, 한개 이상 업체가 들어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만약 접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주시 관계자	- 그렇다면 수의계약 진행으로 특정 업체를 지정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업체 지정 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난번에 논의한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시 관계자	- 관련 기관, 단체 14개에 추천 의뢰했으며, 22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공론화위원님들께서 논의 후 적합하신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22일이면 추천 명단이 나온단 말씀이네요. - 우리가 결정할 참여자들은 도시관리 분야로, 관련된 분들의 참여 의사를 물어보고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면 22일 명단이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토록 할까요?
위원 모두	- 네
위원장	- 알겠습니다. 추후 추천명단을 보고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 위원님 발표하시기 전에 7차 회의록 내용을 보면, - 일단 저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혹시 수정사항 등이 있으신 위원님 들은 회의 종료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 위원님으로부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PF 등에 대한 설명 (○○○ 위원) >	
위원장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혹시 질문하실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저희가 시나리오 워크숍을 할 때,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한방직 부지개발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야기해야 할 방향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님이 개발부담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에 대해 알아보셨습니까?
전주시 관계자	- 도시개발법에 의해 사업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받을 수가 있고, 국토법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 위원	- 상업용지로 변경한다는 조건에서 개발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전주시 관계자	- 맞습니다.
○○○ 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개발부담금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다음번에 ○○○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업조닝에 의한 계획이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그래서 앞으로 개발부담금이 아닌 계획이득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주거용지로만 개발해도 계획이득이라고 봐야 하나요?
○○○ 위원	-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주거용지로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계획이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위원	- 그럼 만약에 시나리오 안이 주거용지로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위원	- 그래서 제가 시에 요청한 내용이 서울시 등 다른 곳에서 시행 하는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히 조례에 의해 협상에 의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 그 부분은 도시계획 쪽에서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분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 네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개발부담금이라는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계획이득이라는 용어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또 하나 조속히 사전협상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 다음 ○○○ 위원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까.

< 공공기여 등에 대한 의견 (○○○ 위원)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 용어 부분도 공개공지, 공공용지 등 이런 식으로 섞어서 듣다 보면 아는 사람도 헷갈립니다. - 전체 면적에서 건축물 면적을 뺀 나머지 비율을 공개공지라고 하잖아요? 맞나요?
○○○ 위원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 다음에 기부채납시설 같은 경우도 보면 개발사업구역 내 사실상 진입도로도 필요하며,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 인입 도로나 진출입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사유지로도 할 수 있지만, 공유지로 기부채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의무 상황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라 기부채납도 추가로 하는 것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그 건축물에 진출입을 용이하도록 도로를 내는 것이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구역 내의 교통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며, 이런 개념으로 보면 기부채납도 당연한 영역의 기부채납과 추가적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관계자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업 시행인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개발부담금은 개별법령에 의해 사업인가를 받을 경우 산정이 됩니다. -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사업시행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시행자까지 지정이 됩니다. -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에 의해서 개별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관련 내용을 발표 드리겠습니다. - 지하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해 봤더니, 3가지를 이야기 해줬습니다. - 첫째는 교통 분석이 대상지 내부만 되어있지 외부적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교통량을 추정하는 데 있어 법정주차 대수를 분석한 것을 보면 분명히 업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도, 비주거용도로만 구분해서 추정을 했다는 문제였습니다. - 세 번째로는 지하에 버스정류장이 들어서고, 교차로가 형성되어지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교통 측면에서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 개발에 대하여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그럼, 다음 시간에는 ○○○ 위원님, ○○○ 위원님께서 계획이득에 관하여 발표해 주시고, 시간이 되면 교통부문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계획이득이라는 용어가 법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까?
○○○ 위원	-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 시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에서 계획이득이라는 것이 십여 년 전부터 개발이득환수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나온 용어입니다.
위원장	- ○○○ 위원님이 준비하신 ‘시나리오워크숍 의제 및 논의내용(안)’에 대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나리오워크숍 의제 및 논의내용(안) 발표 (○○○ 위원) >

○○○ 위원	-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나온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짜본다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를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 첫 번째는 지난번에 나온 말씀대로 “전주시 전체의 미래상에 비추어 봤을 때 대한방직 부지가 어땠으면 좋겠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 될 거 같습니다. - 저는 6가지 정도 풀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이 6가지는 기존의 도시계획 2035를 할 때 조사했던 것과 2025를 할 때 조사했던 것들, 그리고 다른 전주 시민들에게 대한방직 부지는 아니지만 전주시 미래상에 대한 시민조사를 했을 때 나온 결과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 문화와 역사가 있는 공간, 자연도시의 생태공간, 경제활성화 공간, 인재육성 공간, 복지 공간, 상업 공간 이런 의제로 본인들이 논의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관광은 3가지 정도(문화·역사, 생태, 경제 분야)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이렇게 해서 대한방직 부지의 비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합의 되면 시나리오워크숍의 두 번째 의제는 “본인들이 상정한 미래상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는가?”로 설정해 해봤습니다. - 여기서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가 용도지역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어떤 용도지역이 좋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 사실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제가 시행령이나 별표들을 찾아봤는데 서른 몇페이지가 되는 데다가 읽어도 사실 명확하게 정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용도구역 관련 판정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시민들에게는 대한방직 부지를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겠느냐(“핵심시설 이라 던지 필수시설이라 던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두 번째 의제를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	---

- 이제 일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앞에 나온 비전들에 따라서 문화·역사의 경우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을 넣으려고 한다는 전제 하에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관람장, 문화시설, 체험시설 이런 것들과 주택단지나 숙박시설과 같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생태공간에 비전을 가진 분들은 녹지 생태공원이라든지 주택단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원주택이나 생태아파트, 동식물원, 태양열시스템, 야외 체육시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구요.
- 경제활성화 공간은 범위가 아주 넓겠지만 숙박시설, 호텔, 관광유통 시설 그 안에 타워 컨벤션과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백화점, 쇼핑몰 같은 것들과 위락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정도도 포함되며,
- 그리고 인재육성공간 얘기는 제가 맥락을 잘 모르겠는데 2025나, 2035시에도 전주시 시민의견에 상당한 비중으로 이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전주시 미래 비전에, 인재육성 공간이라고 하면 각종 교육시설, 연구시설, 이런 것들이 해당 될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복지공간 관련은 복지시설, 병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주택이 들어간다고 하면 임대주택단지 이런 것들이 제시될 수 있을 거 같고, 현상태 유지라고 한다면 제조공장을 건립하자고 하진 않을 거고 첨단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특화산업단지 등과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래서 만약 시민들이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채우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걸 보고 전문가들이 이런 시설로 채우게 되면 용도지역은 어떻게 되겠다라고 판정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용도지역을 무엇으로 하면 좋겠느냐 보다는 공간구성에 대해 물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러고 나면 세 번째 의제로는 두 번째 본인들이 설정한 공간구성이 이루어지려면 관련된 도시기반시설들의 어떤 부분들을 검토해야 하는가 라고 봤을 때,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은 도로교통, 대기수질, 경관조경, 방재안전, 인구배분, 공공시설로 비전이나 공간구성에 따라서 핵심 포인트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예를 들면 문화역사 같은 경우 도로교통, 대기수질, 경관조경, 방재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면, 하단에 첨단산업단지는 대기수질이나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 해봤습니다.
- 그래서 같은 기반시설이라도 비전과 공간 구성에 따라서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보완될 도시기반시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밀줄 그어 놓은 게 아마 좀 강조되지 않을까 정리해 본 겁니다.
- 그리고 의제 4번은 모두 거론된 얘기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본인 들이 공간구성을 하고 설정한 의제 1, 2, 3에 의해서 시나리오가 나온 후 추가적으로 고려될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역

	상권, 종합경기장 개발, 전주시 전체 계획과의 관계 등 이러한 것들도 역시 비전과 공간구성에 따라서 강조점들이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인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 제가 내용은 잘 모르니까 항목들을 여기 썼습니다만 이걸 의제로 넣어야 될지, 넣는다고 하면 이분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포함 여부에 대해 고민이 되었습니다. - 이 정도로 구성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각각의 의제별로 전문가 지원단들이 해줘야 될 내용들과, 필요한 자료들도 적어 봤습니다. - 시나리오워크숍 진행 시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자광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들과 관련 시나리오워크숍이 끝나고 시민들의 판단이 끝난 후에 의견을 주면 그다음부터는 시가 협상해야 될 내용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포함시킬 것인지 관해서 아직 판단을 하지 못했으며, 이 정도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위원장	-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 저희끼리 얘기가 잘 되었고 또한 내용도 잘 정리된 거 같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쉽게 잘 끝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며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 위원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전문가로서 ○○○ 위원님이 시작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 위원	- 매우 자세히 정리를 해주셔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공론화 의제를 4가지 정도로 잡았잖아요. 이것을 부탁은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 4개의 의제가 분절적인 의제가 있고, 또 연관성이 있는 의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연관성이 있는 의제들은 그것을 연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저렇게 표로 경계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굳이 연관성이 없는 의제는 분리해서 논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시나리오워크숍에서 계속 시나리오를 이어가다 보면 가지 수가 많아지거든요. 가지치기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 그래서 최대한 의제를 가지고 연결할 것은 연결하고 끊어도 되는 의제는 끊어서 분절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끔 구조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현재 4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보면 개발이익이나 상권 같은 경우는 그냥 따로 봐도 될 거 같아요. 어찌 보면 상권은 상업시설이 얼마나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특히 개발이익 같은 경우는 앞서 논의를 했지만 거기에 아파트를 짓든 상업시설을 짓든 무얼 하든간에 땅값만으로도 개발이익이 발생할 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부분은 그냥 조금 분절적으로 논의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개발부담금 방식이든 기부채납 방식이든 계획이득이든지 간에 그 기준은 다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거라면, 그 부분은 근거에 맞춰 수순을 준수 하는 게 맞아서 따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다만, 아까 말씀했듯이 개발 방향 곡선과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어려울 거 같아요. 물론 시민참여단들 시나리오워크숍에서는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 오십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신 위원님들도 이쪽 분야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사항이 많고 처음에 공부 많이 하시고 나서 이제 조금 감이 잡혔다고 말씀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시나리오워크숍을 2~3일 한다고 해서 참여자들이 진짜 심도 있게 내용을 이해하는 건 어려울 거 같으니, 조금은 쉽게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거 비율을 높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거에 필요한 어떠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렇게 조금 내용을 열거한 다음, 나중에 어떠한 용도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은 큰 방향성이 나온 후 전문가들이 판단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예를 들어서 “주거시설의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 아니면 “상업시설의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 “녹지 비율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 등 이러한 방향성이 나오면(반 정도 썩 조정해도 될 거 같음) 그것에 적합한 용도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그래서 얘기 드렸던 방향성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는 같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정도 시나리오를 진행하면 그 이후 분절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나 상권에 관한 부분 등을 좀 더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 얘기를 듣고 ○○○ 위원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 거라면 자광 측에는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공공기여, 계획이득 이런 사항은 질문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 위원님이 설명해준 내용에 대해서 ○○○ 위원님은 집중해야 할 부분과 따로 논의해야 될 부분을 나누신 거 같습니다. - 제가 궁금해서 ○○○ 위원님께 여쭙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워크숍 진행을 한다면, 총 3회 진행하기로 한 시나리오 워크숍에

	대해 1회, 2회, 3회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1회 때 의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 위원	- 아니요, 제가 보기엔 1회에 공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전문가가 쪽 얘기하는 것보다 자료를 나눠 주고 익혀 오면 계속 질의 응답하는 방식이 좋을 거 같은데요. - 1회에는 공부를 하고 2회에는 의제와 공간구성에 초점을 맞추며, 만약 지난번 나온 순서에 따라 비전이 제시되고 이때 질문이 소가는 시간이 있다면, 진행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어차피 나머지는 각 시나리오를 작성한 그룹에서 나와 참여자들에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3회 때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 위원	-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었으니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잘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저는 비전, 공간구성, 그다음 용도변경에 관한 의제가 좀 더 논의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주거용지, 상업용지, 비율 이 부분들이 결정되는 바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관 검토사항이나 개발이익 환수는 별도로 논의를 해보는 의제들로써 어느 한 사안으로 해야 할 거 같고 - 공론화 의제를 논의한다고 보면 어쨌든 비전이나 우리가 꿈꾸는 구체적인 공간구성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간구성을 맞추기 위한 용도변경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용도변경에 관한 논의를 한 다음 도시기반시설과 같은 부분들이 충족을 하느냐 까지 보고, 그 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공공기여나 기부채납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별도로 논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저는 공간구성과 도시기반시설 보완 및 검토 사이에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이 한 칸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위원	-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공론화위원회가 시나리오워크숍과 시민공론화를 통해서 도출할 최종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나중에 사적 소유권자인 자광과 협상하는데 있어서 전주시 안을 준거거든요. - 그런데 그 전주시의 안을 전주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전주시가 이 기본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라” 라고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유지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얘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 협상 시 전주시가 “시민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니 이런 사항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제시하는 안에는 자광의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도, 협상 상대자는 결국 자광이고 협상 진행 시 이를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크게 고민 하지는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위원	- 저는 명칭 정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얘기한 비전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거 같고, 두 번째 공간구성에 대해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유재산과 공공의 토지이용이 상생하는 공간구성, 2단락으로 하자면 상생의 공간구성 방안으로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를 전제로 해서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기계적으로 놓고 보면 반반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거나 토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주와 그다음 계획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운영하는 운영주체, 이 토지의 권리권자와 도시운영의 권리권자가 상생의 공간구성에 대한 주요 안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여기에 참여하는 이상 자광이 땅주인이라는 거고, 이 땅을 가치 있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토지의 권리권자와 도시의 운영권자의 상생의 공간구성’ 정도로, 더 줄이면 ‘상생의 공간구성’은 짧게 하고 앞에 서브타이틀로 내용을 붙이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제가 위원님들께 하나 여쭙볼게요. 방향성 측면에서 우리가 워크숍 참여자분들에게 이 땅은 사유지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공간구성에 대해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만 합의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는 만약 어떤 안이 나오면, 예를 들어 바람직한 대표적 미래상이 공원조성이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이것은 사유지이니 안 돼!” 라고 어떠한 방향이 설정되면 논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외되고, 결국 하나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해해 왔거든요. - 그런데 공간구성의 과정에서 이 땅은 사유지이니 사유지로서의 상생할 수 있는 공간구성을 얘기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미래상에서부터 먼저,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사유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공간구성을 얘기토록 하는 것은 방향 설정을 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위원	-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전주 시내에 있는 토지는 다 사유지죠.
○○○ 위원	- 시나리오워크숍에 들어가기 전에 사유지인데 공론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워크숍 진행 시에 이 문제를 별도로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 공론화를 해야 되는 이유, 즉 원론적인 걸로 돌아가는데, 이곳이 원래 사유지이기 때문에 실은 공론화 대상이 안 된다는 기본 전제는 앞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론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 즉 배경이 있는데, 그 전제를 분명하게 앞에서 설명하고 추진배경을 이야기 해주면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 이래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거고, 사유지지만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마련될 거라 생각 들고요. -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워크숍 구상은 일단 1차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다음으로 그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 평가를 할 겁니다. 순서적으로 자광의 사업계획서를 앞에서 보여줄지 중간에 보여줄지는 우리가 더 판단 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래서 계획서를 보면서 내용을 이야기 해주고, 이것이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중간에 넣은 다음, 마지막에 그것을 다시 논의하고 수정제안을 할거예요. 수정 시나리오를 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앞단에서 이것이 공공 내지 사유라 해도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고, 오히려 앞에서 공공과 사유를 분할해서 논 하다고 하면 상당히 이상할 것 같아요.
○○○ 위원	- 제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래서 그 부분 시나리오워크숍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지난번에 전체 프로세스를 쭉 말씀했었지만,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의제를 다루는 거에 대해 1차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장단점을 평가하여 진짜 실현 가능한지,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 팀 자체적으로 냈던 부분과 스스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꿔서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대해 업그레이드해서 수정 제안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그래서 ○○○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려야겠죠. - 그러나 공간구성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유지임을 명심하고 공간구성을 해보라고 하기에는 조금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 그럼, 일단은 교육에 앞서 공론화 배경 설명 시, 이 점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고, 논의의 과정에서는 사유지 유무는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 위원님께서 자광의 사업제안서를 1차 시나리오가 나온 뒤 중간에 실현 가능성 평가할 때 주자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미리 자료집을 보내줄 때에는 해당 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위원장	- 제가 논의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자광의 안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했고, 지금도 다 동의하시잖아요. -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것이냐, 어디까지 보여줄 것이냐는 논외로 하고, 자광의 안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그러면 자광의 안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미래상을 얘기한 후 보여줘야 하느냐 아니면 미래상을 얘기하기 전에 보여줘야 하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처음에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도 이 내용을 지금 듣고 다시 보니, 의제 1에서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 6가지 공간구성이 나왔거든요? 이것 보면 하나씩 개념 적립이 됩니다. - 첫 번째가 문화, 생태, 경제, 교육, 복지, 첨단 6가지가 됩니다. 이것을 어느 한 방향으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이것은 어떤 부지라도, 다 복합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 어느 측면을 더 강조하느냐, 어느 측면이 조금 축소되느냐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면 되거든요. 통계적으로도 추출을 해낼 수 있어요. 이것을 추출해서 첫째 날은 이를 공부 하고, 둘째 날 마지막 시간에 참여자들에게 방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자체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그다음날 제시 해주면 참여자들의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크게 2가지 정도로 나올 거 같아요. - 이것을 가지고 세 번째 날 같이 논의하면 이미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진행이 비교적 수월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최종적으로 시나리오워크숍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무엇이 도출되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봐주세요.
○○○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개발 방향성이나 아니면 ○○○ 위원님이 보여주신 자료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한방직 부지의 미래상을 하나 정해서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 ‘경제 활성화가 풍요로운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방향성이 잡혔다라고 하면 그러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러 이러한 상업시설들을 좀 더 많이 넣어주고요,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주거보다는 대부분 상업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성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도시기반시설도 교통시설과 같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올 거고, 그러면 개발이익이 더 커지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 환수를 하자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 그리고 마지막에 의제 4가 있잖아요.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어떻게 상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및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런 시나리오가 꼭 이어지겠죠.

○○○ 위원	- 그렇게 해서 하나의 시나리오가 된 것이죠?
○○○ 위원	- 그렇죠. 그게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 많으면 32개가 나올 수 있고요.
○○○ 위원	- 방금 말씀하신 건 하나의 시나리오 안입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 안으로, 예를 들면 첨단산업이라고 하자 이거죠.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춘 그룹이 또 나왔어요. 그렇게 그룹이 핵심으로 2가지가 나오면 이 2가지를 놓고서 나중에 공론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 위원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지금 ○○○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대한방직 개발 방향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언제 공개를 할 것인가 하는 거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에 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유지임에도 공론화하는 의미가 있었으니까 이미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굳이 시점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방직은 이렇게 개발한다더라 말을 해야 그들도 이를 조합 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냥 질문이 나올거예요. “대한방직은 어떻게 한답니까?” 그러면 설명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그렇게 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토지의 계획이라던지 도시계획이라던지 이런 방향에 있어서 계획에는 전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 위원	- 관련법과 현재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제공해야 논의를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 위원	- ○○○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하신 거 같은데, 이미 자료를 다 홈페이지에 가서 보거나 위원회 자료집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광의 개발방안은 요약해서 보내주고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2035도 다 넣어주고요. 다만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1차 시나리오에 그런 내용을 넣고, 시나리오가 나온 뒤에 실현가능성 평가 시에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여러 질문 사항들이나 또 거기 나오신 분들의 의문점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갖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자료를 사전에 주고 그걸 중간에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결국은 시민들은 ‘왜 사유지를 공론화 하고 너희들이 결정하느냐, 자광이 할 수 있도록 놔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법대로 해라, 지금 용도대로 하게 되면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공론화하는 이유는 대한 방직 부지가 전주시에서 차지하는 포션을 고려할 때 개발계획안은 원래 용도대로만 해야 하고 인허가를 안 해 주면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쪽을 다 설명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저도 ○○○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이 공론화 자료집에도 나와 있고 전주시민 중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자광이 어떻게 개발 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교육 시 자광의 안도 보여주고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줬으면 합니다. -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 시 공청회라는 것을 해요. 그러면 이미 전주 시민들한테 공론을 거쳤다는 뜻이에요. 그건 법적 순서이고, 공청회를 해서 2035년까지 주거용지로 간다는 걸 시민들이 법적으로 인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공론화를 한다는 것이 우스운 거죠. - 어쨌든 제가 볼 때 현 상황에서 자광 개발 내용에 대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교육할 때 공평하게 다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 위원	- 사전에 간단히 알려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전주시 어떠한 토지 50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바뀌서 거기에다 타워 하나를 크게 짓겠다는 계획서를 전주시에 냈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아마 반려할 거예요. 안된다고 할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죠. 용도변경 하는 걸 생각지도 않는데 자광이라는 업체에서 계획을 세워 바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용도를 바꿔 달라 하는 얘기를 미리 공론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세 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법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것을 임의대로 바뀌서 시에서 허가해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 위원	- 그 문제가 원래 되지 않는 걸 제안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 제안이라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걸 해달라고 한 거고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는 전주시 권한인거고, 다만 우리가 얘기한 주거용지 내에서 아파트를 짓는 문제는 시가 검토 해줘야 하는 문제거든요. 하든 안하든 논의의 과정을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불허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은 거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 저의 제일 큰 고민은 저희가 오늘로 9차 위원회까지 와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통괄적으로 일반화시키고 최대한 논의 후 주요 부분만 추출하여 사흘 안에 이분들한테 쟁점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 그러한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사전에 설명이 충분한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가 여기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 두 번째는 시나리오워크숍 입장해서 사전 정보에 대한 공유를 누가 할 것인가, 용역사가 할건지, 아니면 공론화위원들, 위원장님이 큰 틀에서 도시계획 문제라던지 쟁점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아까 다른 문제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 위원님이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이나 쟁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쟁점에서 기여의 문제는 우리 ○○○ 위원님이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본적인 학습과 공부의 시간은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객관적인 시간을 강조한다고 보면 ○○○ 위원님이 참석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 ○○○ 위원님 그 깊이에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처음에 이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자광이 이런 안을 제안했다 하는 정도, 그리고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은 이렇다 하는 정도의 정보에 대해서 알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 위원	- 그 정도라고 하면 일단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 상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광이 제시한 안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자광안은 실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책제안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줘야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광 안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왜 공론화를 하게 되었는가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2025, 2035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제안으로 해서 사업 계획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 시가 일정한 입장을 표명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하는 이유는, 그게 나름의 의미가 있고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정도로 해서 관련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어야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까지 가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되 그게 주요사안이 돼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 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자광 사업계획서에 빠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딜레만데, 저는 이런 문제가 시민참여단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사전에 하느냐 사후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여단이 이미 질문이나 기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기에 대한 의문이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형태는 이해당사자인 자광이 와서 20분간 자광 측의 얘기를 하도록 하고 객관화하는 장치로 똑같은 동일시간을 주는 걸로, 즉 발표시간을 균일하게 하는 걸로 해서 사전에 마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위원	- ○○○ 위원님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 위원님이나 ○○○ 위원님이 했던 얘기는 심플하게 설명하자는 얘기였고, 지금 ○○○ 위원님 얘기는 아예 처음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들이 모였을 때 자광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또 그 분야별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이랄지 우려사항이랄지 하는 것들을 서로 동일한 시간동안 얘기케 하자는 겁니다. - 그렇다면 누가 이야기 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로 하고, 일단 그러한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저는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분들이 모였을 때 자광의 대략적인 안, 그리고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고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설명이 필요한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얘기해 보자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시나리오워크숍에 참여하는 분들이 왔을 때 자광 안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 누가 얘기하든지 공정한 인품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는 것까지 발전되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거든요.
○○○ 위원	- 이해합니다만. 저는 이런 거 예요.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 순간 자꾸 그 프레임 안에서 질문이 들어오고, 그게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룰을 정해서 그때 말씀드린 정도까지는 서로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이..
○○○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 위원님이 얘기 했던 이 공공기업에 대한 얘기라던지, 또 질문이 나오면 그것까지 같이 얘기하자고 정하고 시작하자는 얘기인가요?
○○○ 위원	- 자광 발표 20분, 보충설명 20분, 나머지 시간은 투자하는 거죠.
○○○ 위원	- 사실 전주시가 안을 정하고 협상을 해주는 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단 협의를 나중에 하잖아요. 그리고 자광은 안이 나와 있고 전주시는 안이 없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 협상하려는 거에 대해 전주시 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전주시 안을 만드는데 이걸 미리 다 반영하여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까지 많이

	- 제가 보기에 전주시 안을 가지고 나중에 자광 측 안과 부딪혀 논의할 건데 미리 전제를 깔고 들어가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과와 배경을 설명할 때 얘기하는 정도가 훨씬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나중에 공론화의 배경을 설명할 때 자광의 이러저러한 얘기를 간단히 설명해주고 끝나도 충분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자료는 이미 들어와 있고, 그걸 자광 측에서 방문하여 다시 발표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요약해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 나중에 우리도 그 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워크숍 두 번째 날 종료 즈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조사와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시나리오 방향이 대충 몇 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세 번째 날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자광의 안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참여자들이 논의할 때 그것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 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배제하고 토지의 이용 문제라던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미래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러한 방향성과 같은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추출하고 난 뒤 자광의 안을 여기에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 시나리오 안과 자광의 안은 도저히 결합이 될 수가 없다, 맞지 않는다고 나올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요.
○○○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 그 내용은 여기 자료집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들어가면 ‘자광 거기 143층에 뭐하죠?’와 같은 쓸모없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 위원님과 ○○○ 위원님 말씀대로 자광을 초대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찬반 논쟁으로 돌아가 버리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위한 시나리오워크숍이 아니라, 자광이 이런 개발을 한단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식의 잘못된 방향으로 논쟁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광이 이정도 사업을 한단다고 하는 걸 한 장의 내용으로 제공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용도나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있다더라’. 이 정도 설명 해주면 다 아는 거라고 봅니다. - 그래서 굳이 자광의 설명과 반대되는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찬반 공청회식의 진행이 되어버릴 수 있고, 자광의 안을 보여줘도 그들이 바람직한 미래상을 찾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 방향으로 가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 위원	- ○○○ 위원님, 지금 자광의 안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 저는 ○○○ 위원님과 시에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아까 공공기여라는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이번 자료집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 ○○○ 위원님과 상의해서 세부표를 만들도록 해달라고 했거든요? - 그래서 ○○○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는 측면에서 보다, 앞서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구분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발언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중적이지만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안을 만들어갈 때 자광 측이나 시민들 언론사들이 이것에 대한 우리의 정당성이나 객관성들에 대해 어떠한 논쟁을 들고 올 것인가가 예상이 되요.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에 대한 수용성이 이후 결과에 대한 수용성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시민참여단에게 기타 충분한 보충정보를 준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해당사자인 자광이 들어왔을 때 설명하기에 충분하진 않지만 어떤 기회를 줬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에 전체적인 이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여론 과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생각해봅니다. 따라서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부분, 우리 안에서의 내부적 이야기 뿐 아니라 외부에서 여기에 대한 이해까지 생각할 때 저는 오히려 약간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 예요.
위원장	-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주장할 기회도 주지 않았지만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냥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 있는 것을 제공했을 뿐이고 주장할 기회도 물론 반론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 예를 들면 어느 시나리오 참여 위원님이 ‘이정도 재산가지고 가능한가? 혹은 공공기여는 얼마나 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 위원님이 공론화위원들은 가급적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만약 시나리오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이 그렇게 물어 본다면 저희는 위원회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답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 문제에 대해 물어본다면 “뭐 이런 정도의 우려는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들에게 자료 제공 측면으로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 진행하면 될 거 같습니다.

	-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153층인지, 예산은 얼마로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나중에 결정되어지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설계위원회, 경관위원회 이런 곳에서 전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제출되면,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이 결정되었을 때 더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세세한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로 교육하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 위원	- 위원장님 저희가 시기를 얘기했었잖아요. 자광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과정상 정당성과 결과의 정당성까지 뒷받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토지주가 빠진 공허한 공론화, 토지주에게 설명도 없는 공염불 공론화 등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	-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자광 측에 두 번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 위원	- 아니요. 두 번이 아니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 의견이 아니고요. 저희가 논의가 조금 섞인 거 같은데, 처음 설명 시 자광 측에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혹은 두 번째 의제 사항에서는 자광 측에 설명 기회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시나리오워크숍에서 자광 측에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인지 혼란스러워서 한번 여쭙보는 겁니다.
○○○ 위원	-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론화를 하고 결과가 나와서 진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려면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용성 측면을 무시할 순 없단 말이지요. - 그리고 공론화를 2단계로 하는데, 전반적인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공론화 앞부분에서 시나리오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때 전문가들과 정책하는 분들, 이해관계자들, 주변에 사는 시민들 같은 이해관계가 깊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시나리오를 만드니, 숙의의 정도가 어찌 보면 훨씬 더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그런데 저의 생각은 자광 측이 사업계획서를 지면상으로 1~2페이지 제시하고 이렇게 사업한다라고 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나중에 결과의 수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안이 나왔던지 간에 나중에 자광 측이 그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민참여단들이 그걸 선택했던 선택하지 않았던 당사자가 수용 못 하는 것으로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론화를 왜 했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아요.

	- 어쨌거나 우리가 이 공론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전주시민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자광 측과 같이 뭔가 잘 보완해서 만들어 수용성 있게 가자는 전제가 깔려있잖아요. 그렇다 하면, 그래도 시나리오워크숍에서는 자광 측에 한 번 정도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시민 분들도 실제 공론화를 하는 중에 ‘자광 나와라.’ 이런 소리를 할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자광 측이 직접 와서 설명해 줄 기회를 안줘?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 2단계 숙의를 하다 보면 시민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하기까지 시나리오를 설계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 어쨌거나 시민들은 이 시나리오워크숍에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모은 안을 가지고 제한된 범위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까지 자광을 불러서 설명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그래도 시민들한테 나중에 조금 이야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정 안되면 비디오를 찍어서 녹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보완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자광 측이 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나중에 그들이 여기에서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장에서 논의한 시민들이 전주시민들과 전주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의견을 폈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위원	- ○○○ 위원님, 저희가 자광 안에 대해서 찬반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위원	- 찬반은 아니예요. 참조를 한다라는 거죠.
○○○ 위원	- 그런데 참조를 하는 방법이 꼭 자광 측에서 와서 설명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자광에 대한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에 반론하는 반대의 주장도 와서 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	- 거기서 찬반 프레임으로 가서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 자광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 해주고, 대신 요즘은 이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절차적인 공정성이에요. - 내가 이해관계자고 내가 이 땅의 소유자인데, 우리가 여기다가 민간 특례 사업을 하던 무엇을 하던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이런 것이 모든 갈등의 출발점 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은 분명히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되요. 그리고 우리가 천만 공론화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구절절 디테일하게 들어보자라는 게 아니라 딱 제한된 시간을 주고 여기에서 10분간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발표를 해달라라고 한 후 그다음에 질문을 한두 가지만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안하고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자광에서 이 시나리오워크숍에서 나온 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도적 틀 안에서 시나리오 안을 제시할 거거든요? 불법적인 것을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할 이유가 있나요?
○○○ 위원	- - 수용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협상을 하면 그래도 이 안이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고 그 의견을 모아준 것이기 때문에 자광 측에서, 사유지이지만 계속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논의가 되는데, 자광 측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 하지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라 아니면 상업시설을 지어라 짓지 말아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죠. - 대신 자광은 제도적 틀 안에서 선택지는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 위원	- 수용 여부는 지금 주어진 제도적 틀 안에서 자광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진 틀이라고 하면 황무지로 방치를 하던지, 하지 않던지 자광의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시한 안을 받겠다 받지 않겠냐를..
○○○ 위원	- 받겠다,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일단 공론화를 하면 시민들이 그 부지가 어떤 식으로 개발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공론화에 결론이 나왔어요. A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게 어쨌거나 공론화의 결과이고 전주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론화를 했기 때문에 전주시의 입장이나 전주시민의 입장에서서는 가급적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 부지가 개발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 자광도 그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거지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절차 속에 당사자도 같이 참여하고 결과를 만들어가서 수용성을 높이자는 거죠.
○○○ 위원	- 그런데 ○○○ 위원님, 자광이 발표케 하지는 않지만 자광의 안은 이렇다라고 알려주잖아요. 지금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분이라도 발표케 하느냐 아니면 그냥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 위원님은 발표케 해야 한다. 그래야 참여시키는거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 위원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런데 굳이 발표하는 것이 참여하는 거고, 이렇게 안을 소개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이 아닌 건지?

○○○ 위원	- 이 논쟁은 지난번에도 했었어요. 사실 저는 자광 측의 발표를 듣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시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자광의 발표를 먼저 듣느냐, 아니면 의제 진행 중에 듣느냐 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아예 자광을 배제하고 논의하자는 건데요. - 저는 시나리오워크숍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마 요구할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를 들었고, 우리도 똑같은 논리에요. 공론화 위원회는 사전준비위원회에서 자광 측 제안내용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과연 자광 안의 발표를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내부 논의가 있었고, 이미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문가들이므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마 과정이라든지, 결과적 수용이라든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어쨌든 이야기가 되는 거라는 부분까지 의견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긴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평가 시간을 좀 줄이자 그래서 미리 할 건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자고 정리가 된 문제인거 같은데요. - 그런데 오늘 다시 자광을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로 논의가 되는 부분이라면 저는 다음에 한 번 투표까지 갈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자광의 의견을 어느 과정에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음 회의에서 한번 결정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 지금 ○○○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는 저는 결정되었고, 자광 측의 안을 자광으로부터 듣자라고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파급효과라든지 하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자라는 의미에서 논의가 되어졌던 거고
○○○ 위원	- 저도 1분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프긴 한데,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이 전주시가 자광 측과 교섭이나 사전 협상을 할 때 전주시민들이 원하는 안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제시하는 건지 아니면 자광도 수용 가능한 그런 안을 내놓는 건지, 이게 갑자기 복잡해지면서, 저도 근본적으로는 자광의 안을 감추고 하자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 발표는 굉장히 파급력이 커서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자광의 안을 10분 발표하게 하면,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2035 안도 10분 발표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고요. ○○○ 위원님이 하신 얘기 중 분명한 것은 전주시민들이 원하는 대한방직 부지의 시나리오 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광이 제출했던 안과 다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면 훨씬 좋은 거고, 굳이 자광이 받아들이지 않는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 같습니다.

	-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전주시민들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는데 자광이 “그래 좋아 받아들일게”라고 하면 최고 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회를 주려면 ○○○ 위원님은 그래도 자광으로부터 발표하는 시간을 줘야 나중에 자기들과 나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들이 이런 안을 내준 거에 대해서 동의한거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상의 절차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 또 다른 위원님들은 우리 엄위원님 얘기처럼 자광에서 발표를 너무 잘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거기에 매몰되어서 아예 다른 부분은 보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려하는 바가 있는 거죠. -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다만 지난번에 ○○○ 위원님이 얘기했듯 어떻게 제시할거냐 하는 얘기는 다음에 한다 할지라도 처음 시작할 때 자광으로부터 발표할 기회를 주자하는 것은 거의 확정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논의하고 싶으시면 해도 좋고, 시간을 언제 주는가 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자광으로부터 10분이면 10분 발표할 기회를 주자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 위원	- 저의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을 할 때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 발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시나리오 안을 도출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째 날 이상적인 시나리오 안들이 거의 나왔을 때 그때 자광에서의 안을 제시해보는 것이 영향력이 적을 거 같아요.
○○○ 위원	- 발표의 내용도 자광에서 하도록 하지 말고, 논의에서 중요한 몇 가지 가닥을 우리가 정해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 위원	- 잠깐만요. 저는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자광 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발표를 하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중 자광의 안 자체를 나름대로 검토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때 얘기를 듣고 하는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네, 그러면 일단 ○○○ 위원님도 양보를 해주시고 해서 일단 자광 안을 듣는 것은 그 안을 무작정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차 정도라도 정해줘서 10분을 듣는 걸로 하고, 언제 이것을 들을 건지는 차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 ○○○ 위원님께 하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아까 미래상 6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좋고 재미있는데, 혹시 시나리오워크숍 처음 시작 시 저희들이 그 6가지를 일단 먼저 물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논의할 때를 상정, 미래상을 미리 조사를 해보는 방법은 어떨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그러니까 이걸 제공해 놓고 이렇게 미래상이 있는데 하나의 안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틀 속에서 논의하게 하는 건지
○○○ 위원	- 이거는 일단 예시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제약할 이유는 없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그런데 굉장히 재미나고 중요한 예시라서 시나리오워크숍 참여하는 분들에게 이 중 한번 골라보라고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 위원	- 그것은 나중에 시민참여단 공론조사를 할 때 조사 안에 내용 참조해서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일 거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어쨌든 제약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정리한 근거 자료가 이전에 했던 조사의 결과들이라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줄 건지, 아니면 그냥 논의 해보라고 할 건지
○○○ 위원	- 비전은 그냥 오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것은 다음에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 위원	- 위원장님, 지금 논의하자는 건 아니고요. 잠깐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아까 ○○○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의 취지라고 보는데요. 용역사가 선정되더라도 사전교육 첫째 날 과연 공론화 대한방직 부지 사안을 우리 위원들만큼 잘 알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 그리고 또 용역사가 들어온다고 한들 첫째 날 그 짧은 시간 내에 배경과 내용 설명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일부 공론화의 의미라든지 기타 객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위원들이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하는 게 맞지 않을 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이후에 한 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 마지막으로 저는 제 주장을 계속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부분에 대해 ○○○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일부 정치적인 부분, 속된 말로 축이 발달해 있으며 말씀은 한 번도 안하셨지만 혹시나 자광의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 위원	-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는 입장에서 앉아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용역사가 곧 정해진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9차에 걸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 용역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컨트롤하고 시나리오워크숍에 참여한 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염려가 되요. - 그런 부분에 대해, 어차피 우리가 시나리오워크숍을 하는 필수 요원으로 선정을 하고 결정을 해준 만큼,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기대치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민자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떤 의제나 어떠한 사항을 잘 설명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시나리오워크숍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그분들 역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올거예요. 자광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한다, 모르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집착을 너무 하시지 않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저는 ○○○ 위원님의 의견에 존중하며 어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설명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다 일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	- 네, 전체의견이니깐 따르겠습니다만 약간의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성을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충분히 말을 못했다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대비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며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	-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거 같아요.
○○○ 위원	- 말씀하신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참석하게 할 건지 정말 정교하게 설계해야 되고, 좌지우지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 위원	-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조금 다른데요. 나중에 워크숍을 하고 최종 보고서를 내고 할 때 수용 가능한 안을 내놓지 불가능한 안을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수용 가능한 안을 내놓고 수용할지 하지 않을지는 자광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수용 가능하지 않은 안을 여기서 내놓을 수는 없어요. - 다른 공론화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여기에서 수용 불가능한 안을 내놓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 다만, 그런 부분은 있겠죠. 발표시간 10분을 졌을 때 불만을 가진다면 10분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자광 측에서 나중에 트집을 잡거나 다른 시민 위원회에서 요즘 공론화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의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두렵거나 무섭지는 않다고 봅니다. - 다만, 저희들이 이야기한 발표시간 10분과 엄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목차 정도는 우리가 정해주고, 또 ○○○ 위원님이 얘기한 공공기여도를 명백하게 나누어서 발표를 해달라 하는 것은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면 다음 위원회 날짜를 정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9월 2일 오후 어떻습니까?
○○○ 위원	- 오후에는 기자간담회가 있어 안됩니다.
위원장	- 기자간담회는 한번 늦추고 9월 2일에 하는 건 안될까요?
○○○ 위원	- 제 생각에는 돌아오는 회의 시 기자간담회를 했으면 좋겠고 9월 4일 오전에 하더라도 기자간담회를 미루면 안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회의는 9월 4일 오전으로 하겠습니다. -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알릴 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 그러면 제9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